



3면

"성진강르네상스 중단 없이"

전주매일

2022년 4월 4일 월요일 (음 3월 4일) 제298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일 새만금 남북도로와 수변도시, 신항만 국제공항 부지를 차례로 방문해 새만금 핵심기반시설 조성의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되는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새만금, 도민들의 미래 먹거리”

송하진 도지사, 새만금 핵심기반시설 추진 점검
도로·항만·수변도시 건설현장서 중요성 강조
“산업혁명과 함께 새만금 개발로 도민 기대 부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새만금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새만금개발의 필수 요소인 도로, 항만, 공항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의 진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점검에 나섰다.
송하진 지사는 특히 새 정부에서도 새만금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핵심 기반시설들의 완공에 각고의 노력을 펴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현장상황을 꼼꼼히 살펴봤다.
송 지사는 이날, 남북도로와 수변도시, 신항만 국제공항 부지를 차례로 방문해 새만금 핵심기반시설 조성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되는 생생한 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
송 지사는 새만금 남북도로 현장에서는 농생명용지, 복합개발용지, 관광·레저용지 등 3대권역을 동서축과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로서 중요성을 강조하며 1단계공사(동서도로와 교차로에서 군산방향), 급년도 준공과 2단계공사(동서도로와 교차로에서 김제방향) 등이 내년도 7월 준공 계획일 정에 차질 없도록 관계자 격려와 공사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건설중인 신항만에서는 2025년까지 2선식 규모로 우선 개발 예정으로, 지

난 2016년 11월 방파제 축조공사 완료, 2021년 2월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 준공 현황과 현재 진행중인 진입도로·방파호안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송 지사는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만이 매우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들이 새만금항을 통해 세계 해양으로 나가게 되는 그날까지 자부심을 갖고 일해 달라”고 말했다.
송 지사는 또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서는 탄소중립의 친환경적이고, 첨단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기반시설의 국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송 지사는 아울러, 최근 중대재해처징에 차질 없도록 관계자 격려와 공사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

데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주의도 당부했다.
송 지사는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부지를 방문해 “국제공항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기단축 방식 도입 등 후속작업을 빨리 마무리토록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전북도 관계에게 주문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있고 공공분야 핵심 시설인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해 새만금 개발을 견인하고, 이를 위해 새 정부의 국정 과제 반영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전북도정은 전북도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의 땅, 새만금 개발로 좋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필수'...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세요.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단 조성 본격화

전북도, 올해 산단 지정계획 국토부 정책 심의 통과 따라

전북도가 김제시의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수행능력과 입지수요를 검증받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산업입지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부 소관 정부위원회다. 시도별로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수요 검증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3일 개최된 국토부 산업입지 수요검증 조정회의에서도 전북도와 김제시는 수요 검증반으로부터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
도는 심의결과를 반영한 '2022년도 전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오는 8일 고시할 예정이며, 김제시의 산단조성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단은 김제시 상동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1,712억원을 투자해 89만 5,0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내 90개 산단 중 10개 산단을 보유한 김제시는 특장차 특화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입주가 지속돼 지난해 산단분양이 완료됐다.
지평선 제2산단 또한, 전주·완주 혁신도시 및 김제도심이 연계해 인력 수



급이 용이하고, 고속도로 IC가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28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해 기업 입주수요는 이미 100%를 초과한 상태이다.
이에 김제시는 계획 기간내 조성을 마무리하고, 기업수요를 충족시켜 연결한 지평선 제1산단 및 순동산단과 연계해 산업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도는 전주시, 김제시의 지평선2산단을 탄소산업 육성과 전주시의 부족한 산업입지를 대체하기 위해 전주 탄소국가산단과 연계한 탄소 소부장 협업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에 따르면 김제 지평선2산단 조성으로 인해 3,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2,36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유호상 기자

오늘부터 영업시간 1시간 더

도,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따라 17일까지 2주간 시행
향후 2주간 의료체계 안정화 될 경우 대부분 방역조치 해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8인에서 10인으로 늘리고,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밤 11시부터 12시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2주 동안 전반적인 유행상황을 평가해 위중증 환자 및 의료체계가 안정적일 경우, 1~2번에 걸쳐 실내마스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10명, 영업시간 0시까지로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이미 도내 인구의 22.8%가 확진됐고, 백신 접종률도 2차 84.4%, 3차 70.4%(지난 1일 기준)에 이른 상태에서 거리두기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 2면에 계속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